

## 의지를 잃지 않는 자세



김 상 선

-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과 졸업
-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최고령합격

### I. 시작하기에 앞서

사법시험을 준비하였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맘때이면 내년 연말에는 따뜻하고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한번쯤은 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매년 연말이면 내년에는 합격하여 연말을 마음 편안히 보낼 수 있기를 갈망하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금년에 합격하여 아마도 더 이상 사법시험으로 인한 힘든 일은 없게 되었으나 주위의 후배 등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저의 이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 II. 저의 수험과정

저는 대학을 졸업하던 해인 2002년도 1차시험에 합격하였으나, 2002~3년도 2차시험에 불합격하였습니다. 2004년 집안사정 등에 의해 공부를 접고 법률사무소 등에 취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에 일하는 중에도 패배감과 아울러 사법시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말이 되자 다시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법률사무소를 그만 두었고 다시 수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낮은 토익실력으로 인해 토익준비로 2009년을 거의 보내고, 2010년이 되어서야 실제로 1차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준비한 2011, 2012년도 1차시험에 실패하였고, 2012년에는 모교인 동국대학교 고시반에서 6개월간 부사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 듯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의 경험은 저에게 다시 사법시험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이며 자신감있게 도전할 수 있게 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2011, 2012년의 시험 준비기간 막연히 합격하겠지 싶

은 마음에 소극적으로 공부하였던데 비해, 부사감을 하는 동안 보았던 열심히 공부하여 합격한 후배들의 모습과 더 이상 부끄러운 선배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저에게 좀 더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였고 합격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상 짧은 기간이나마 얼마나 집중하여 공부하였나 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 생각합니다. 이후 2013년 1차시험에 합격을 하였으나, 2013, 2014년 2차시험에 불합격하였습니다. 2014년 제 56회 사법시험에서 형법과락을 맞으며 불합격하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던 형법에서 과락을 맞아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나 토익 및 1차시험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빠듯하였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채로 마냥 있을수는 없었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야 했습니다. 저의 경험상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다시 공부를 하고 시험을 통하여 풀 수 있었던 듯 싶습니다. 시험 때문에 힘들다고 외부적인데 풀려고 하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시험에 자신감을 잃게 하였던 듯 싶습니다. 다시 준비한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1, 2차에 다행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 Ⅲ. 전체적인 공부방법론

#### 1. 최고령 합격자로서의 당부

아마도 최고령합격자로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말고, 현재 힘든 사정에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참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의 수험과정을 돌아보면 저 시점에 왜 지리했을까 하는 후회와 더불어 억지로 버텨던 제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아마도 수험준비를 하는 여러분 모두 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의 글이 여러분이 이 과정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2. 이해와 암기

예전 제가 대학을 다닐 무렵 학원강사였던 학교선배님들간에 법학교육은 이해를 해야 하는지 암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 이르러 제 생각엔 과연 어느것이 타당한지 견해대립을 한 사안인가 의문이 듭니다. 법서의 그 많은 분량을 이해가 되지 않은 채 암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내용을 이해하고 있 다하더라도 암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시간이 부족한 요즘의 시험형태에서 합격점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험 또는 과목이든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내용을 이해하고 반복에 의한 학습으로 암기를 해야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3. 자신감

제 지인 중 한명은 “시험장에서 주위를 둘러보라. 이들보다 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다짐하라.”고 저에게 조언을 하곤 하였습니다. 사실 그 지인도 사법시험을 준비하였었는데, 1차시험을 떨어졌을 때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실수를 많이 하였었습니다. 쉬운 문제를 너무 많

이 틀렸었는데, 이렇게 쉬울 리 없다는 생각에 고민을 하다가 틀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모의고사를 볼 때면 상당히 점수가 높게 나오는데 실제 시험에 들어가기만 하면 계속 떨어지는 주위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시험을 볼 때 자신감을 상실하면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우므로,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시험을 볼 때뿐만 아니라, 공부를 할 때도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져야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당해 시험에 자신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나마도 시험에 임박할수록 시험을 포기하여 거의 공부를 않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지 저도 명확하게 말하기는 힘들다,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1차합격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걸로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모의고사 성적이나 계획에 따른 규칙적인 학습 등을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2011, 2012년 1차시험에 연달아 떨어진 이후, 저 또한 자신감이 상실되었고 계속 공부를 해야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2012년 9월경부터 1차시험 준비를 다시 하게 되었는데, 계획을 짜서 계획표대로 공부하고 암기장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물론 불안함은 여전하였으나, 작년과 비교하여 공부시간을 더 투자하였고 규칙적으로 공부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4. 효율성(단점의 극복)

저는 대학에 다닐 때도 사법시험을 봤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가 안 올랐습니다. 제가 사법시험과는 안 맞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책꽂이 한쪽에 꾸겨 넣어둔 시험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형법의 형벌론, 친상법 부분 등이 많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제가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암기하면 된다고 하여 방치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암기를 싫어해서 시험마판에 암기하면 된다면 계속 미루어 둔 부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충격을 꽤 받았었고, 다시 공부를 하면서는 평소 제가 싫어하는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나자, 2002년 1차 시험 성적은 총점 4~50점은 올랐고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1차에 합격하였습니다.

2011, 2012년도 1차 시험에 실패하고, 2013년도 시험을 준비할 때도 이 방법으로 확인하여 봤더니 과목당 한 두 문제 가량 문제를 잘못 읽는 실수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였고, 문제를 끊어 읽으면 이 실수를 최소화하리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 2월 동안 문제를 끊어읽는 연습을 하였고, 그 덕분에인지 2013, 2015년 1차시험은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다짐을 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러나 작년과 같이 금년도 공부를 한다면 다시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년에는 합격하기 위해서는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거나 자신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나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의 경우 그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만족스러운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단점을 찾아보고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이 이때까지 해 왔던 공부방법도 자신의 습관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바꾸는 것 또한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위에서 시험에 떨어진 이후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나, 다시 공부를 시작한 이후 몇 달이 지나면 다시 작년과 같이 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냉철하게 반성하고 내년에는 꼭 합격할 것이라는 의지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될 것입니다.

## IV. 1차시험 관련하여

### 1. 1차 시험시험 준비기간

(1) 저는 얼마 등의 이유로 1차는 보통 8~9월경부터 준비를 하였습니다. 대학에 다닐 무렵 테이프강의를 듣고 책정리를 한 이후 1차 시험 준비는 독서실 등에서 혼자 공부하였습니다. 2014년 10월초에 2차 시험에 떨어진 후, 동년 10월에 토익을 넘기고 11월부터 1차 준비를 다시 하였습니다. 인천 주안의 동네 독서실에서 공부하였습니다. 10~11시경에 독서실에 가고 11~12시경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는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부족하다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1~2시간 공부를 하였습니다. 원래 여유있게 계획을 짜고 싶었으나, 짧은 기간에 준비해야만 하여 실제 제 계획은 뻘뻘할 수밖에 없었고 공부하는 내내 진도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중간에 계획을 수정하여 1바퀴 더 돌리는 걸 뺀 수밖에 없었습니다.

(2) 1차시험을 준비할 때는 헌, 민, 형법의 암기장을 꼭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암기장을 만드는 것이 귀찮다고 여겨 항상 만들지는 못하였고, 제 수험기간중 세차례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암기장을 만든 해, 저는 1차시험을 합격하였습니다. 암기장을 만들었을 때의 장점으로는 단순히 책을 읽을 때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자신이 암기가 잘 안된 부분, 약한 부분을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고 보충했다는 점에서 불안함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2. 1차 헌법준비

헌법의 최근 출제경향상 법령은 중요한 부분만 나오는데, 정회철 기본서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정회철기본서만 보고 따로 법령집은 보지 않았습니다. 판례 또한 정회철 기본서에 잘 정리되어 있으나, 최근 출제경향상 최근 판례가 특히 중요하므로 이 부분은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차강진 3년간 판례와 최근 1년간 판례책을 별도로 보았습니다. 문제집은 따로 보지 않고 김유향의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를 구하여 대신 보았습니다.

### 3. 1차 민법준비

지원립 교수님의 기본서에 권순환 객관식 판례, 박기현 5년간 판례 및 최신 1년간 판례를 보았습니다. 민법도 문제집은 보지 않는 대신 권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를 구하여 보았습니다. 다만 민법은 판례와 기본서 중기본서 위주로 보았습니다. 지원립 교수님의 기본서가 가독성이 떨어진다고들 말하여 시작할 때 갈등이 되긴 하였으나, 2~3회독후에는 읽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원립교수님 기본서에 시험에 나올만한 중요 판례는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판례책은 판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되므로 판례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었습니다.

### 4. 형법준비

신호진 박사의 형법요론을 기본서로 보았습니다. 형법은 특히 판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신호진 형법판례총정리, 신호진 3년간 형법판례, 이인규 3년간 판례, 최신1년간 판례를 보았습니다. 기본서의 이론부분은 암기장을 만든 후에 암기장 위주로 보고 주로 판례를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형법도 문제집을 따로 보지 않고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를 구하여 보았습니다.

### 5. 선택과목

예전에 경제법을 선택과목으로 준비하였는데, 양이 너무 많고 시간이 많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암기사항이 적다는 국제법으로 선택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김종훈 변호사님의 기본서와 김종훈 변호사님의 강의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이 적으리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했고, 기본 3법보다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였습니다. 공부시간으로 볼 때 거의 형법을 준비했던 시간만큼이나 들었으므로 너무 비효율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6. 1차 시험 방법

문제 지문을 끊어있으며 실수를 최소화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문제지문의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012년 1차시험에서 지문에 따옴표까지(?) 넣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을 잘 생각했으면 풀 수 있는 4점짜리 문제를 틀렸습니다. 당시 그 문제를 맞추었다면 합격할 수 있었는데 틀리고 무척 아쉬워 했습니다. 주위의 지인이 “얼마나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저런 문제를 틀리느냐, 더욱이 출제교수님이 그 부분을 신경쓰라고 표시까지 해 주었는데 그럴 수 있냐, 문제를 풀 때는 출제교수님을 존경하고 문제의 작은 부분까지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라”고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충고를 속이 쓰리게 마음속에 새겼고 문제를 풀 때 문제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보려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험을 보았지만 전체적으로 한 두 문제는 실수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보자 시험시간은 상당히 부족할 수 있었고, 금년 헌법시험의 경우 시

간이 부족하여 4점짜리 헌정사 문제는 2~3분 동안 풀다가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어렵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보이는 문제는 우선 답이라 생각되는 것을 임시로 체크해 두고 넘어가고, 남은 문제를 다 풀고 답안지를 작성한 후에 임시로 표시한 5~6 문제를 다시 풀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임시로 표시해 두었던 답이 정답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 V. 2차시험에 관하여

### 1. 2차 시험 준비기간

2015년 1차 시험을 보고나서 하루를 쉬고 2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신림동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2차 시험에서는 계속 모의고사를 보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학교 고시반과 신림동 중 신림동을 선택하였습니다. 3순환 모의고사는 빠지지 않고 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모의고사는 자신의 공부진도를 맞추고 시험감각을 위해 볼 뿐 채점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으나, 중간 중간에 채점에 너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형법은 전년도에 과락을 맞았던 과목이라 더 신경이 쓰였고 모의고사에 몇 번 빠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침 5~6시경에 일어나 방에서 잠깐 보다가 독서실에 가거나 아침 모의고사를 보러 갔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먹은 후에 짧게 산책을 하거나 병원 등에 갔다 오거나 문방구에 가서 필요한 필기류 등을 사왔습니다. 10~11시경에 고시원 방에 올라왔고 올라오는 도중 간식거리를 사와서 방에서 야식을 먹은 후에 1~2시간 가량 공부를 한 후 잠을 잤습니다.

### 2. 2차 시험기간

#### (1) 교통수단 및 식사

시험장소가 연세대여서 신림동에서 연세대까지 택시를 타고 시험을 보러 다녔습니다. 제가 멀미가 심한 편이라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도 멀미를 하였습니다. 특히 첫째 날 시험을 보고나서 돌아오는 길에는 멀미를 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시험을 보고나서 돌아오는 길에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였는데, 당시 제 짐이 너무 무거워서 셋째 날은 다시 택시를 이용하였습니다. 물론 시험 보러 갈 때는 계속 택시를 이용하였습니다. 당시 연세대가 공사 중이라서 학교를 나오는데 돌아갈 수 밖에 없었고 도로까지 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4일간 택시와 계약을 할 걸하고 후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시험장을 가는 도중 편의점에 들러 삼각 김밥 두 개와 물을 사갔고, 아침은 그 중 하나를 시험장 앞 벤치에서 먹었고, 점심때 나머지 하나를 먹었습니다. 어차피 시험기간 동안은 식욕이 없고 간편하게 먹으려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험장은 개방하기 전에 도착하였고 개방할 때까지 벤치에 앉아서 책 등을 보다가 개방되면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보았습니다. 시험장에서는 공부를 하는 도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표시해 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시험감독관들이 가방을 앞으로 내놓으라고 하

면 내놓고 “잘 볼 수 있다. 어차피 실력은 다 비슷하다. 여기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보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북돋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내놓은 후, 생각나는 부분이 갑자기 생겨서 다시 책을 꺼내들고 잠깐 복도에 나가 확인한 후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 (2) 시험에서의 실수들

저는 2015년 2차시험의 둘째 날 2교시인 민사소송법 1문의 1을 실수하였고, 셋째 날 형법 1문, 형사소송법 2문 중 일부를 실수하였습니다. 셋째 날 시험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시험을 잘못 봤다는 생각이 들었고, 형과 후배에게 전화를 하며 확인을 하려 하였습니다. 실수한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었고 확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다른 수험생들의 복기를 보기까지 하였습니다. 위의 세과목을 실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4일째 민법 준비를 해야 함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날 저녁도 거의 먹지를 못하였고, 독서실에 가서도 한숨만 나오고 책은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방에 올라가 준비해야겠다며 짐을 싸서 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방에 와서도 민법 책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창 너머 어두운 관악산을 바라보며 눈물을 짙짙 흘리기만 하였습니다. 또한 넷째날 시험장에 가서도 의욕이 생기지 않았고 시험에 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 후, 해당과목들에서 비록 한 문제씩 실수를 했으나 다른 문제에서 충분히 점수가 나와서 합격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특히 수험기간 중에는 자신이 실수한 부분은 크게 느껴지고 자신이 잘 본 부분은 별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볼 과목에 열중하기 위해서는 4일간 시험 보는 도중에는 이미 본 시험에 대해서는 일체 생각하려 하지 말고 주위 수험생들과도 말하지 않으려 해야 할 것입니다.

## (3) 답안작성시 저의 요령들

답안을 작성할 때는 해당 부분의 키포인트 단어와 해당 판례의 중요부분과 관련 법조문을 꼭 적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시험을 볼 때 시험장안에 있는 수험생들간에 객관적인 실력 차이는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답안을 조금이나마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답안에 현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그리 할 수 있는 것은 관련 법조문을 꼭 적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판례와 관련하여 주위에서 판례원문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지만, 저의 암기 능력상 판례 원문을 정확히 암기하여 적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공부할 때부터 판례 중 중요부분을 암기하려 노력하였고, 시험볼 때도 판례의 중요부분만은 적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답안을 작성할 때 되도록 많은 논점을 찾으려 노력하였고, 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 보이더라도 최대한 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나 주저하지 않고 쓰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답안을 상당 분량 작성했는데 실수를 했을 때, 지우지 말라는 주위의 충고가 있었습니다. 이 충고를 들은 저도 2014년 2차 시험을 보며 반페이지 넘게 적었는데 문제

를 잘 못 읽고 적었음을 알게 되었고, 지우지 않은 채 비교하며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발표 후 해당 점수는 잘 못 적은 부분까지 고려하여 채점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되게 하였습니다.

#### (4) 글씨

사실 저는 글씨가 상당한 약필이어서 글씨에 대한 걱정도 많았습니다. 특히 2014년 56회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약필인 글씨에 빠른 속도로 쓰려고 하여 엄청 갈겨 썼고 젤펜으로 썼는데, 당시 지도 답안지의 내용을 읽을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2015년 57회 2차 시험을 준비하며 글씨체를 바귀보려고 펜을 잡는 방법 등을 바꾸어 보는 등 몇 달간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만에 글씨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았고, 시험볼 때까지 글씨체가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글씨체가 나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젤펜 대신 볼펜 형태의 펜으로 바꾸었고, 2015년 답안지의 글씨는 여전히 약필이었으나 읽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 3. 각 과목별 2차 시험 준비

#### (1) 헌법

2015년의 경우 1차 시험 후 4달을 준비하여 2차 시험을 준비해야 했으므로, 매우 시간이 빠듯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듣지 못하고 모의고사만을 보았으며, 책을 보며 공부할 때도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헌법은 김유향 변호사님의 300 암기장을 반복하여 보며 암기하려 노력하였고, 모의고사 또한 김유향 변호사님의 것을 보았습니다. 틈틈이 시간이 나는대로 정회철 변호사님의 케이스집을 보았고, 특히 각 문제의 서문에 있는 답안작성 요령은 저의 미숙한 답안을 보완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여 꼭 보려고 하였습니다.

#### (2) 행정법

행정법은 김기홍 선생님의 쟁점정리를 반복하여 보았고, 정선균 선생님의 엑기스연습은 판례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며 실제 판례 사례에서의 논점 추출을 연습하였습니다. 모의고사는 정선균 선생님의 것을 보았는데, 3순환 기간 중 나누어 준 보충자료 중 판례평석은 이번 시험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에 행정법 점수가 그리 좋지는 못하였으나, 그나마 위 자료가 제 행정법 답안지의 내용을 채울 수 있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 (3) 상법

상법은 김혁봉 선생님의 상법신강을 반복하여 보았습니다. 예전에 동영상 강의를 들으며 김혁봉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던 부분을 책에 체크해 두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덕분인지 작년 회사법 문제인 1문과 올해 1, 2문은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례집은 김남규 변호사님의 기출문제 책을 보았는데,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의 차이를 느끼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중점적으로 보려고도 하였으나, 금년에 사례집까지 자세히 볼 정도로 시간이 많지 않아 제대로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모의고사는 황의영 선생님 것을 보았는데, 상법의 채점하는 분의 채점평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학원의 다른 과목은 어떠한지 모르나 상법을 채점하는 분의 친절하고 자세한 채점평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 (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이창한 선생님의 기본서만 보고 별도로 사례집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창한 선생님의 기본서에 중요 사례문제는 모두 포함하여 간략하게 답안이 있고 저에게 사례집까지 볼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기본서만 반복하여 보았습니다. 모의고사는 이창한 선생님 것을 보았습니다.

#### (5) 형법

기본서는 이인규 선생님의 논점정리 책을 반복하여 보았습니다. 케이스집은 이인규 선생님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을 보았는데 기존 사례책에 비해 실제 시험을 대비하기에 좋다고 여겨 졌습니다. 특히 2014년 2차 시험에서 형법을 과락을 맞았으므로, 시간이 별로 없더라도 형법 사례책만은 자세히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법의 위 기출문제집은 2~3회독은 했습니다. 모의고사는 이재상 선생님의 것을 보았습니다.

#### (6)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이재상교수님의 기본서에 신이철 교수님의 자료집을 보충하여 단권화를 한 이후에 기본서를 중심으로 반복하여 보았습니다. 모의고사는 2015년에는 정주형 선생님 것을 보았습니다.

#### (7) 민법

2014년에 박승수 변호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박승수 변호사님의 책을 정리해 두었는데, 2015년에 그 기본서를 반복하여 보았습니다. 2015년에는 시간이 별로 없고 박승수 변호사님의 기본서만으로도 사례집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의고사는 박승수 변호사님의 것을 보았습니다.

## Ⅵ. 체력관리 등

(1) 합격자 발표 후 주위에서 저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체력관리는 어떻게 했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나이먹고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서였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힘든건 사실이지만 노장생이라 하여 특별히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육체적인 것보다는 불안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수험기간 중 주위에서 체력관리를 잘 하라는 말들을 듣고 운동을 좀 하라고들 하여 방에서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 등을 잠시 하였습니다. 그것도 졸음 등 다음날 공부에 방해가 되기에 중단하고 식사 후 동네산책으로 대신 하였습니다. 제 고시원 방은 상당히 높은데 있었는데 식사 후 산책 겸 방에 다녀오곤 하였습니다. 2차시험 1~2개월 남은 시점에는 핸드폰을 방에 두고 식사 후 방에 가서 확인하고 오곤 하였습니다.

- (2) 계획에 따라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이 합격을 위한 기본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격이 상당히 예민하여 자다가 한밤중에 주위 소리에 깨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깨고나면 다시 잠이 들기 힘들었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공부를 하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또한 이후 며칠간 컨디션이 망쳐지곤 하였습니다. 저처럼 예민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 다소나마 불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숙소를 정할 때는 이런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고, 숙소를 정한 이후에 자는 시간대에 주위에서 시끄럽게 하는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대화 등을 통해서도 해결하기 어렵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방을 옮기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VII. 고마운분들에 대하여

저는 오랜 기간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중간 중간에 일을 했기에 그 동안 저를 여러모로 도와 주고 정신적으로 힘을 북돋아준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상당한 나이를 먹은 채 공부하고 있는 아들의 공부를 뒷바라지해 주신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저와 공부를 같이 하면서 충고를 해 주거나 힘들 때 위로가 되어 주었고, 2013년도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후에는 경제적인 지원까지 해 준 형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한 학교 고시반에 있으면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준 후배 광철이나, 중간 중간에 찾아와서 힘내라고 힘을 북돋아 주고 가던 대학 선배 김성진 변호사님, 중간 중간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를 풀기 위해 전화를 해도 짜증 한 번 안내며 말을 나누어주던 인호 형 등 많은 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서면이나마 전하고 싶습니다.